

관훈클럽 미래위원회 보고서

2014년 6월 24일

제1부 총론

- 1. 구성과 활동 7
- 2. 클럽 현주소에 대한 종합적 점검 8

제2부 논의된 문제들 -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 1. 클럽의 정체성: 끝까지 ‘언론’을 말해야 한다 13
- 2. 클럽의 적정 규모와 신입회원 가입: 새로운 기준 필요한가 13
- 3. 소그룹 활성화 및 지원: pilot 프로그램을 검토할 만하다 14
- 4. 관훈언론상 확대에 대한 검토 16
- 5. 기자 해외연수에 대한 검토 17
- 6. 관훈신영기금교수에 대한 검토 18
- 7. 관훈 토론회/세미나/초대석의 품격 높이기 19
- 8. 현역 참여 높이기 방안 20
- 9. 홈페이지를 ‘관훈 포털’ 기능으로 전면 개편 & 관훈통신 인쇄版 통합 21
- 10. 회원에 대한 지원 강화 22

제3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 올해 집행부의 인식 27
- 2. 보론 28

제 1 부

총 론

1 구성과 활동

a) 구성 배경

2014년 집행부는 클럽의 외적, 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현안들을 종합적,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찰과 모색을 해보자는 취지이다. 미래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은 뒤 적절한 추후 절차를 거쳐 올해 집행부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현안들은 보고서 형태로 남겨 앞으로의 집행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미리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 현재 관훈클럽의 업무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일단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해 보기로 한다. 실제로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주체를 분명히 해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b) 구성

역대 총무 중에서 3명, 그리고 직전 총무, 총무 출신이 아닌 회원 중에서 1명, 언론계 경험이 있는 현직 언론학 교수 중에서 1명을 선임하고, 현 총무가 사회 및 간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미래 위원 7명은 다음과 같다.

- ▶ 조용중(9대 총무, 1962년)
- ▶ 구월환(39대 총무, 1992년)
- ▶ 남찬순(51대 총무, 2004년)
- ▶ 오탈규(60대 총무, 2013년)
- ▶ 김원태(59대 2012년 임원, 현 신영기금 감사)
- ▶ 박재영(고려대 교수, 조선일보 기자 출신)
- ▶ 이용식(현 61대 총무)

c) 활동

3월 7일 1차 회의 이후 5월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가졌다 [상세 자료 별첨].

- ▶ 1차 회의(3월 7일): 클럽 정체성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자유 토론
- ▶ 2차 회의(3월 27일): 클럽 예산 지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 3차 회의(4월 3일): 사업별 비용 및 클럽 재정에 대한 검토

- ▶ 4차 회의(4월 10일): 소그룹 모임 지원 가능성 검토
- ▶ 5차 회의(4월 18일): 관훈언론상 확대 및 권위 제고 방안
- ▶ 6차 회의(4월 25일): 관훈토론회·초대석 등 연구 활성화, 홈페이지·관훈통신 개선 등
- ▶ 7차 회의(5월 2일): 회원 참여 활성화 및 회원 지원 확대 방안
- ▶ 8차 회의(5월 16일): 종합 토론

2 클럽 현주소에 대한 종합적 점검

a)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더 보태고 뺄 것이 없다

- 규약 제3조: 본회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 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언론에 관하여 서로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 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쓴다.
- ‘신문연구’ 창간사: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신문’을 신문의 참모습으로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중략) 어지럽게 내딛는 마스크뮤니케이션 奔流 속에서 어지럽지 않은 시야를 간직하려는 우리 자세의 投影이다.”

b) 클럽의 장점

-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 중추적 언론인들이 지속적으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 시니어, 주니어 언론인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신영연구기금이라는 독립 재원(財源)을 확보하고 있다.

c) 클럽의 단점

-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낮고, 회원 입장에서는 클럽이 해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한다.
- ‘원로 클럽’ ‘보수적 클럽’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 ‘신문 중심’ 성격이 강하고, 신문 비중 감소가 클럽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강한 전통과 관행 중시에 따른 매너리즘 및 변화에 둔감할 위험이 있다.

d) 변화의 양대 방향

① **[대외적으로]** 언론 본연의 가치, 저널리즘에 집중하면서 언론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언론계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관훈클럽의 영향력,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다른 언론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 중이고, 신문의 상대적 비중 약화와도 관련 있다. 창립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단체들과 경쟁하듯 하는 일을 지양하고, 이 시대 언론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선도적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점차 약화되는 저널리즘의 본산 역할이 필요하다.

② **[대내적으로]** 클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위해 활동 공간과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립 초기에 소수의 자발적 회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으나 현재 1,000여 명의 회원들이 그런 방식의 소통과 참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전제이지만,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제 2 부

논의된 문제들

-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

1 클럽의 정체성: 끝까지 '언론'을 말해야 한다

a) 3대 핵심 지향은 유지해야 한다

‘연구·친목·언론 발전’이라는 3가지 목표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대내·대외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연구와 친목 어느 쪽이든 ‘언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관훈클럽은 끝까지 ‘언론’을 말해야 한다.

b) 회원 모집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되, 그만큼 윤리성 강화도 필요하다

창립 초기에는 선구적 젊은 기자들이 모인 자발적이고 exclusive 클럽이었다. 스스로 엘리트 의식과 책임감, 자부심이 강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환경과 클럽의 구성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회원 수가 늘고, 소속 회사와 언론 매체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클럽 회원 가입 및 운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되, 다른 방식으로 회원의 자격과 자질을 유지하고, 내부 윤리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c) ‘한번 언론인은 영원한 언론인’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창립 60년에 임박하면서 시니어 회원이 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상당 기간은 모두가 주니어, 현역이었으나 지금은 회원 1,000여 명 중 현역이 55%, 언론사에서 퇴직한 회원이 45% 비율이고, 당분간 시니어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현역 회원들의 활동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니어 회원들도 언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번 언론인은 영원한 언론인이다. 시니어 회원들이 지속적,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계속 언론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2 클럽의 적정 규모와 신입회원 가입: 새로운 기준 필요한가

a) 클럽의 적정 규모: 회원 500명? 1,000명? 그 이상?

과거 500명을 넘지 않아야 클럽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매년 30~50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 1,000명을 넘었다.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회비 미납 등으로 자동 탈퇴하는 회원도 있어 1,000~1,200명 사이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b) 신입회원의 범위 확대 고민할 때다

과거 신문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반영해 지금도 신문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의 참여를 확대하고, 점차 늘어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문제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

c) 가입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가?

현재 그 해 임원들이 각 사에서 1~3명을 추천하면 사실상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편리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가입된 회원들의 소속감이나 참여 의식이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보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 당분간 현행 방식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다.

- ① 언젠가는 회원 수를 줄이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입시켜야 한다.
 - ② 반대로 회원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③ 매년 신입회원 수(ceiling)를 정해 놓고, 매체의 종류나 언론사 구분 없이, 심지어 광의의 언론계까지 포함해 필요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그룹 활성화 및 지원: pilot 프로그램을 검토할 만하다

a) 필요성

클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창립 회원 18명, 초기 회원 30여 명 시대와 현재 1,000명 시대의 클럽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회원 수 증가에 반비례해 자발성과 참여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 얼굴을 모르거나, 가입하고 한 번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도 적지 않다. 반대로 한꺼번에 모두 모여

행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회원 숫자가 커졌다. 따라서 활동을 하려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장(場)과 적절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 소그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관심사에 따라 포럼, 공부모임 등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이에 대해 가능한 지원을 하고, 활동 내용과 결과물을 회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언론계와 사회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 이슈 포럼’ ‘안보 포럼’ 등 취재 연구 활동이나 ‘英詩 모임’ 같은 공부 모임, ‘산악회’ 같은 친목 모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소그룹의 적절한 규모, 활동 주제, 활동 방식, 성격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집행부가 적절히 심의하면 된다.

c) 예상 문제점

- 다른 언론단체에서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하다.
- 중구난방 형태가 되고, 잡음만 많아질 수 있다.
- 특정인의 사적 모임 형태로 흐를 수 있다.
- 순수한 친목·취미 모임인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 클럽 회원 이외에 일부 비회원도 참가하는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원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행정 업무도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 소그룹도 움직이려면 ‘간사’가 중요한데, 그런 역할 할 사람이 있을까.

d) 검토 가능한 代案

- pilot 프로그램으로 1~2개 지정 후, 그 결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가부(可否)를 정할 수 있다.
- 클럽이 주도적으로 1~2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초기에 기사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듯이, 경제기사 잘 쓰는 법, 탐사보도 등 특정 주제를 정해서 5~10년차 기자들까지 참여시켜 지원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클럽에서 지원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활동보고서를 내고, 관훈저널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4 관훈언론상 확대에 대한 검토

a) 필요성

관훈언론상(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 포함)이 가장 전통 있는 언론상이지만 최근 다른 언론상이 많이 생기면서 그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시상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시상하고, 기업들은 언론상의 상금을 늘리고 있다.

관훈언론상은 한국 언론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훈클럽에도, 한국 언론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클럽 창립 목적의 하나인 언론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관훈언론상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관훈클럽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b) 상의 신뢰도 높이기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사의 1단계는 그해 집행부, 2단계는 심사위원회'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특히 심사위원장이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상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상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현재 관훈언론상의 분야별 상금(1,000만 원)은 폴리처상(1만 달러)과 비슷하다.

c) 상의 분야 확대 필요성

- 지금의 2개 분야보다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급격히 늘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관훈언론상은 다른 상들과 달라야 한다.
- 공공서비스상, best writing상 등 전혀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특종상은 좋지 않다. 필요하다면 기획이나 탐사보도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언론 부문에 대한 상은 필요하다.
- 사진 분야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틸 사진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분야다.
- 브레이킹 뉴스와 기획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실험적 저널리즘' 분야 상을 만들어 언론의 선제적 변화를 격려할 수도 있다.

d) 賞의 권위 높이기

- 상은 받는 사람이 영예스러워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 연말에 하는 방안, 3월쯤 하는 방안이 있는데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 있다.
- 시상식에 수상자의 회사 관계자나 가족은 물론 사회 지도층도 초청할 수 있다.

e) 최병우기자기념국제보도상에 대한 검토

국제보도로 한정하다 보니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차제에 관훈언론상의 한 분야로 포함 시키되, 최병우 선배를 기려 ‘최병우상’ 명칭 자체는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훈언론상이 개편된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자 해외연수에 대한 검토

a) 검토의 출발: 비효율 발생

현재 매년 3명씩 보내고 있는 기자 해외연수는 신영연구기금에서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전체 사업예산의 6분의 1 정도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런 비용 투입에 비해 기자 해외연수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클럽이 해외연수 지원을 시작했을 때는 해외연수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언론재단 등에서 상당수 기자들을 보내고 있고, 연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경험을 쌓는다는 식의 기자 연수를 바꾸어야 할 때도 됐다. SBS 서암재단에서 이미 그런 시도를 시작했다. 관훈클럽 지원으로 연수를 다녀온 기자들이 클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 연수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b) 축소? 폐지?

지금 같은 형태의 기자 연수는 한정된 재원을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클럽 입장에서 더 이상 굳

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 한국 언론계에 기자 연수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을 다른 곳에 넘겨주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 비용이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급작스러운 폐지가 어렵다면 2명으로 축소하고, 1명은 다른 방식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중견기자를 6개월 정도씩 연수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c) 예상되는 문제점

비용 문제 때문에 젊은 기자 연수 지원을 중단하면, 돈 때문에 언론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클럽에 대한 주니어 언론인들의 관심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금을 출연한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연수 다녀온 기자들이 클럽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관심을 갖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

d) 대안

- ① 특정 주제를 정해 몇 명으로 팀을 구성, 국내 및 해외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 ②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원을 통해 기자의 전문성을 높이게 할 수도 있다.
- ③ 해외연수를 보내더라도 ‘저널리즘’ 분야에 국한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 ④ 젊은 기자 대신 중견기자 연수로 대체할 수도 있다.

6 관훈신영기금교수에 대한 검토

a) 검토의 출발점: 클럽 창립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관훈신영기금교수 역시 신영연구기금에서 운용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훈신영기금교수가 ‘언론 발전’에 어느 정도 실질적 기여를 하느냐에 의문이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종합하면 언론학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학 측에서도 그리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지원금이 1년 동안 기금교수의 월급으로 지불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b) 폐지? 대안?

우선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월 100만 원씩 4명 정도에게 줄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닌 서울 근교나 지방 대학을 선택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한다. 실제로 교수 진용이나 언론계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은 있다.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대학을 선호하지 않고, 클럽 입장에서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신경 쓰이는 문제다.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폐지하고,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지하더라도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언론학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 관훈 토론회/세미나/초대석의 품격 높이기**a) 관훈토론회 차별화를 위한 방법을 더 고심해야 한다**

관훈토론회는 언론이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 토론회였으나 최근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 등 차별화가 안 되고, 매력도 줄어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초청자, 좋은 패널, 좋은 질문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 뭔가 새로운 시도가 더 필요하다.

b) 관훈세미나

언론계의 변화와 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어 분기별로 한 차례 정도씩 언론보도와 관련된 주제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좋다.

언론 현안에 대해 시간에 쫓기듯 빨리 하기보다 천천히 하되,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방식이 좋다. 여기에 현역을 토론자로 많이 참석시켜 현직에서 느끼는 인식을 얘기한다면 현직의 참가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은 물론, 언론학계에 연구를 위한 좋은 1차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c) 관훈초대석

시의적절한 사람을 초청해 그때그때 적절하고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 오프더레코드 형식, brown bag 방식 등도 가능하다. 미리 연간 계획을 세우면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

d) 종합 대책

-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guest’를 불러내고, ‘가장 좋은 패널’을 구성하는 일이다.
-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많이 보도되어 알려지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인터넷 매체와도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치’ 주제가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경제, 문화 등 미래지향적 주제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현역 참여 높이기 방안

a) 현역의 참여가 부진한 원인

클럽에서 현역의 활동이 많아야 활발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다. 심지어 그해 임원들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너무 바쁘다. 많은 현역 회원들이 나름대로 소속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굳이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는 행사가 별로 없다. 현재 신입회원 환영 모임과 연말의 송년 모임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회원 입장에서는 클럽에 대한 소속감, 클럽 활동에 대한 의무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냥 관훈클럽 회원이라는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회원 가입할 때부터 그냥 누가 추천해서 회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 성찰과 모색

현역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억지로 오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클럽은 자발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해 집행부 임원들만 적극 참여해도 된다.

관훈 토론회/세미나/초대석에 현역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을 자주 등장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c) 대안

- 방송기자연합회의 ‘저널리즘 아카데미’처럼 취재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현역 중심의 모임도 생각할 수 있다. ‘출판 담당 기자’들의 월 1회 정도의 저녁 모임이 있는데, 저자를 불러 토론하고 식사하는 모임이다. 참고할 만하다.
-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현역끼리의 모임, 현역들이 함께 참가하는 모임도 가능할 것이다.
- 각종 토론회, 세미나, 초대석 등의 행사에 가급적 토론자로 많이 참가, 토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9 홈페이지를 ‘관훈 포털’ 기능으로 전면 개편 & 관훈통신 인쇄版 통합

a) 발상의 출발

홈페이지는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소통·홍보 수단임에도 클럽 홈페이지는 비교적 활성화 되지 못하고, 모바일 기능도 사실상 없다.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는 중요한 통합 수단의 역할도 한다.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그것을 통해 언론계 및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 홈페이지에 회원 개인 집필실(블로그) 제공

홈페이지를 클럽 전체의 움직임을 전하는 공간이면서 개인의 집필 공간, 글을 발표하는 場으로 개편하면 유용할 것이다. 특히 클럽에는 유능한 필자들이 많다. 평생 언론인으로서, 좋은 글은 프론트 페이지에 소개할 수 있다.

그런 좋은 글이나 기획해서 부탁한 글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인용할 경우, 매개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c) 홈페이지에 ‘관훈통신 인쇄版’ 통합

관훈통신에는 회원들 및 언론계 동정이 주로 나가는데, 너무 늦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인쇄판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정보는 회원들의 이메일로 자동 배달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관훈통신에 게재되는 ‘유료 원고’들은 그대로 유료 원고로 받아 홈페이지 관훈통신에 게재하면 된다.

다만 그래도 인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결국은 관훈통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d) ‘저널리즘 포털’로서의 위상 만들기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클럽의 주요 행사들이 저널리즘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언론인과 언론학계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 환경 급변과 언론학계의 저널리즘 연구 분위기 저조 등을 고려할 때 클럽의 이런 역할은 갈수록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e) 전담 인력의 필요성

홈페이지를 제대로 꾸미고 관리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형식도 가능할 것이다. 회원 중에서 희망자를 찾아 적절한 대우와 함께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마스터도 검토해야 한다. 비용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10 회원에 대한 지원 강화

a) 저술 지원

매년 20명 안팎에게 500만 원(번역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반드시 회원일 필요는 없다. 재정을 마련해 확대할 수 있지만 책의 quality를 고려하면 그렇게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장 늘리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후 변화를 봐 가며 검토하는 것이 좋다.

b) 국내 답사여행

단시간에 1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불편하므로 같은 행사를 2주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총무나 사무국이 두 번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더 자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c) 해외 세미나 여행

회원 개인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행사다. 1999년부터 15년 이상 계속되면서 이제는 세미나 장소를 정하기도 어렵게 됐다. 차제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인기가 높은 만큼 당분간 계속하면서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유사한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언젠가 생길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d) 강연 시리즈, 연극 관람 등 행사

그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행사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다.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집행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e) 원로 회원들에 대한 예우: 아직은 시기상조?

역사가 긴 단체의 경우 원로 회원들에 대한 예우, 예를 들어 가입 30주년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관훈클럽의 경우도 창립 57주년이 말해주듯 수십 년 활동한 회원이 많고, 그분들이 연로해져 가고 있다. 특정한 기준을 정해 언론인으로서, 관훈클럽 회원으로서 기여한 바를 기릴 수 있을 것이다. 모임 형태가 아니더라도 집필 여행 지원 등 관훈클럽다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올해 집행부의 인식

a) 올해 새롭게 시작 가능한 일

- 관훈언론상 확대
- 소그룹 지원 시범사업
- 홈페이지 개편

b) 기존 프로젝트 발전 노력

- 토론회/세미나/초대석
- 회원 지원 강화
- 현역 참여 높이기

c)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문제들

- 정체성
- 신입회원 문제
- 언론인 해외연수
- 관훈신영기금교수

d) 추진 방식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별 프로젝트별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한다.

한 해의 자체 예산 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신영연구기금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補論

미묘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당장 논의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적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회피하기 힘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① 현재 1년 임기 총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클럽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총무가 임원을 구성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다. 클럽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총무, 서기, 기획, 회계, 편집 등의 운영위원 명칭 중 일부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운영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클럽의 재정적 자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단체나 기업과의 협력 명분으로 지원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③ 클럽과 기금의 구조 및 역할 문제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떤 일은 클럽이, 어떤 일은 이사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무난하게 작동하지만 혹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 애매함이 뜻밖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다. 그 관계의 형태도 비유하자면 상원과 하원, 이사회와 경영진 등 가급적 명쾌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지 모른다. 앞으로 또 다른 반세기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